

# 초지로가는 길

- KBS 제공 -



우리나라 낙농업 발전의 당면과제는 조사료 확보를 위한 초지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부존자원인 산지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사료비절감과 외화절약을 기하고 나아가 토양개량에도 기여해 우리가 염원하는 축산입국 건설이 멀지않다 할 것이다

마침 KBS가 각계의 전문가와 초지조성 현장을 탐방하며 우리나라 초지조성의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월요기획으로 제작, 지난 '82년 11월 15일(월) 밤 10시15분에 제1TV로 '방영한 초지로 가는길'을 소개하여 그 내막을 알아본다. 시간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고 통계숫자도 '82년 당시의 것이거니와 TV방송프로를 글로 표현함에 따르는 산만성 등을 널리 이해하여 줄 것을 믿는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산이 전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산에서 소들이 풀을 뜯는 목장의 모습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야산초지에 소를 길러 모자라는 쇠고기와 우유를 보다 싼 값으로 공급할 것을 KBS는 주장한 바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91년까지 6,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만ha의 산지초지를 새로 조성할 것을 계획해 놓고 있다. 복합 영농으로 농민의 소득도 올리고 모자라는 쇠고기의 자급률도 끌어 올려보자는 계획인 것이다.

이제 목초가 과량게 잘 가꾸어진 한길야산에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자

주 보게 될 축산입국의 꿈이 임태되어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산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의문으로 남겨 두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것이 초지조성에 가장 적합하고 또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자연을 해치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알아본다. 따라서 초지를 만들어 소를 길렀을 때 얼마나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소의 증식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취재하여 초지로 가는 가장 지름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초지의 기본은 땅이다. 가파르지 않고 비옥한 야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큰 길가 야산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임야는 대부분 그 규모가 작아서 5ha 미만의 산지가 88%나 된다. 초지를 조성할 만큼 땅을 사들이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또 일부에서는 초지조성을 위해 땅을 파헤쳤다가 토양유실로 버리지는 않을까 요려하고 있다.

656만ha의 우리나라 임야 가운데 초지로 적합한 야산은 얼마나 되며 초지로 바꾸고 나면 토양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알아본다.

초지를 조성하려면 초지에 적합한 토양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토양 조건이 좋아야 한다. 둘째로는 경사도가 그리 급하지 않는 등의 지형적 조건 즉 외적조건이 좋아야 한다. 초지조성을 위해 어차피 산지, 구릉지로 올라가야 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토양특성이 나쁘다. 모래질로 된 조립질이 아닌 중립질 정도의 사양토 계통이 좋은데 우리나라 산지는 암석풍화로 인하여 토양특성 즉 비옥도가 나쁘다. 전국의 흙이 산성암으로 되어 있어 조립질이다. 대체로 사양토 계통은 물이 잘 빠지고 뿌리가 잘 뻗어내릴 수 있는 반면에 인산, 유기물 등의 부족성분이 많아서 화학적 특성이 나쁘다. 따라서 이런 토양은 초지조성 후 개량을 해야 하는데 인산질 비료나 유기물 등을 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초지조성을 하고나면 자연적으로 유기물 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지조성에 적당한 토지이다. 초지에 알

맞는 토양을 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흙색깔로써도 알 수 있다. 초지조성을 하게되면 토양의 유기물 즉 비료양분이 증가되고 물리적 성질이 개량되므로 그 빛깔이 검다. 그러나 야산지대나 일반산지의 소나무가 자라는 데서 채취한 흙을 분석 비교해 본 결과 황색 계통의 빛이고 굵은 자갈 비슷한 모래질로 되어 있어 이런 토양은 암석풍화로 침식이 많았고 토심이 얕으며 비옥도가 낮은 것을 쉽게 알 수 없다.

산의 경사도로서 초지조성의 적합여부를 많이 거론하는데 대체로 경사가 급하면 토양유실이 심하여 암반노출이 많다. 이런 산은 보통 토심이 얕아 초지로 조성했을 때 산사태의 위험성 등이 우려되므로 오히려 임지로 보존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초지조성에 적합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알아왔다. 전국의 토양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선 토양특성이 문제가 되는데 경사도 30° 이하와 토심 50cm 이상(경사도가 급한 산지는 토심 20cm 이상)인 토양 즉 불경운초지가 가능한 면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총임지면적 656만 정보 중에서 약 400만 정보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토양 조건이 나쁘거나 초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산지를 제외하면 약 230만 정보가 초지 혹은 전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

다음은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본다.

우리나라가 초지조성을 시작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초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초지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기술부족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1982년) 전국의 초지 면적은 8만 2천ha인데 지금(82년당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5만 1천ha로서 3만 1천ha가 부실초지로 버려져 있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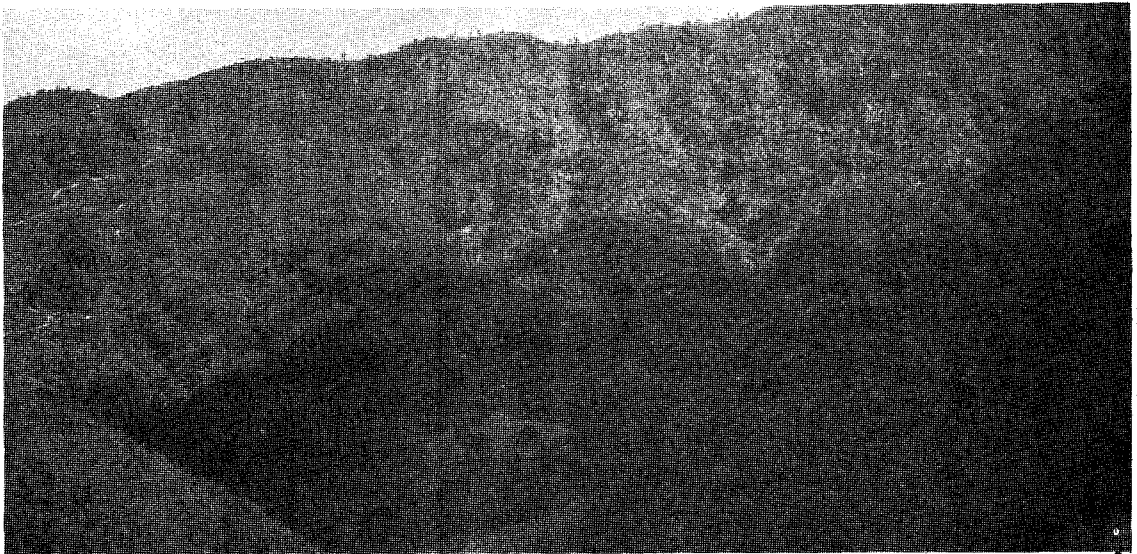
부실초지의 대표적인 표본으로서 불도저로 높은 지대를 깎아 평평하게 만들고 파종을 하였는데도 얼른 보기에다 형편없는 초지임을 알 수 있다. 땅을 다져주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다. 경운초지는 땅을 다져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진압작업이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에 실패한 예

의 대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적기에 파종을 한 다해도 열흘이건 스무날이건 수분공급이 없으면 발아되지 않는 것이다.

파종방법에 있어서도 목초는 산과 즉 흩어뿌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릿골처럼 골을 만들어 씨를 뿌리고 다시 흙으로 덮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는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골을 만들어 파종하는 경우는 골만드는데 따르는 힘든 노력뿐만 아니라 골사이에 목초가 자라지 않아 생산량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목초종자는 흩어뿌린 다음 갈퀴로 한번 긁어주기만 하면 된

다. 초지조성시 초지는 표면이 완전히 덮이도록 되어야 수확량이 많아지고 토양유실도 방지할 수 있다.

부실초지로 된 예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를 찾아 알아왔다. 지난 '69년에서 '75년 사이에 서울에 사는 모씨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60ha의 초지를 조성해 놓고 몇 차례 가축을 입식 출하한 다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완전히 폐허된 상태로 산으로 복고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국토의 66%를 점하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초지조성해 나가는 일, 그것은 우리나라농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초지조성에 실패한 대부분의 경우는 기술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물론 축산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모르고 목가적 낭만으로만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도시사람들도 있으며 목재를 벌채하거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했다가 산을 버려두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초지조성은 반드시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만 허용하되 기준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우선 초지를 경운으로 조성할 때 유의할 점을 보면 땅을 경운하데 있어 나무뿌리같은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해야하고 토양유실의 방지를 위해 너무 깊게 갈지 말아야 한다. 경운 초지의

장점을 보면 짧은 시간내에 좋은 초지를 만들어 정상적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운초지 조성지역이 대체로 경사도 낮기 때문에 파종이나 풀베기, 묶기, 건초만들기, 기타 사일로의 운반 등 작업관리에 있어 기계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그러나 경운초지의 단점은 첫째로 경비가 많이 든다. 나무뿌리나 잡초 제거 등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비용도 불경운초지의 2배 이상이 소요된다. 두번째의 단점은 초지조성을 잘못된 상태에서 비가 왔을 경우 토양유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로는 초지 생육시에 땅이 잘 아물지 않아 수분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불경운 초지조성은 경운초지의 대상지가 아

년 경사가 급한 곳에 많이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나무를 베고난 뒤 뿌리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입식시켜 조성하는 제경법(蹄耕法)과 가축이 없을 경우 결뿌림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경운법과 불경운법 중에서 우리나라에 알맞는 방법을 전문가를 찾아서 알아봤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여름철 집중강우현상에 의해서 오랜 세월이 걸쳐 산의 흙이 씻겨내려서 대부분 골짜기 심하고 경사가 급한 곳이 많다.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쌀이나 기타 곡식을 재배하여 식량생산에 이용하고 작물이 되지 않는 경사진 곳에 우선 불경운법, 그 중에서도 제경법이나 결뿌림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앞으로 많이 쓰여질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지조성의 대부분은 땅을 갈아 실시하는 경운법이었다. 땅을 갈 수 있을 만큼 경사도가 얕은 곳은 이미 논밭으로 개간되어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초지조성의 대상지역은 땅을 갈아엎으면 토양유실이 위험이 있는 경사지이다. 이 때문에 불경운 조성 방법인 제경법이 강조되고 있다.

제경법은 초지조성 이전에 소가 먼저 있어야 한다. 초지를 조성할 지역에 전기목책을 설치하고 야초를 모두 뜯어먹게 한다. 야초를 모두 뜯어먹고 땅이 드러난 곳에 씨를 뿌려 소가 밟으면 씨앗이 골고루 흩어지게 되며 소의 배설물이 거름이 되어 발아가 잘된다.

이같은 제경법은 땅을 갈아엎는 경운법에 비해 경비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자금회전을 빠르게 하며 토양유실의 위험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제경법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초지 조성보다 먼저 가축입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기목책 설치 등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알맞는 목초종자를 전문가를 찾아 알아본다.

기후조건에 따라 세가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해발이 높아 춥거나 겨울에 동해(凍害)의 위험이 있는 중북부 이북지방에는 추위에 강한 티모시를 중심으로 하거나 오차드그

라스를 중심으로 하여 섞어서 초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둘째로 중북부 지방에서는 재생력이 좋고 가축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초종으로서 오차드그라스를 중심으로 하되 여름철 많은 비에 의해서 흙이 씻겨내릴 염려에 대비해 톨레스큐를 중심으로 심게 되면 여름철의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가뭄의 피해도 줄일 수가 있다. 셋째로 서늘한 도서지방이나 해안지방 또는 남부지방에서는 추위에는 비교적 약하지만 가축 방목시 비교적 재생력이 강한 페러니얼라이그스를 중심으로 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초종(草種)이라는 것은 결국 기상조건과 관련이 있다. 초지농업이 가장 발달된 영국과 독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영국은 연중 강수량이 고르며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다. 독일도 영국보다는 못하지만 1·2월만 조금 추울 뿐 연중 기온이 고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월과 1·2월의 월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여름 특히 7·8월은 몹시 더워 목초가 자라기엔 부적당하다. 따라서 외국의 목초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옮겨 심는다는 것은 적응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알맞는 초종을 속히 개발해야 한다.

현재(82년 당시) 오차드그라스를 중심으로 서너 품종이 육종 개량되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추위와 고온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기에 전문가들이 부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서 「리디캐날리그라스」라는 품종이 있다. 이것은 더위에 강한 품종으로서 초세는 비교적 거칠고 조악하지만 생산성이 높고 땅속 줄기에 의해 뿌리가 잘 뻗어나가기 때문에 목초밭이 황폐해지지 않으므로 습지나 전초지에도 잘 자라 앞으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조성한 초지에 비료를 주는 농가는 의외로 드물다. 목초는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 비료를 주어야 한다. 농수산부의 조사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비료를 주는 농가는 10% 정도이고 전혀 주지 않는 농가는 배가 넘는 24% 정도이다. 외국의 경우 한번 조성한

초지가 수십년 혹은 수백년 지속하는 것은 바로 훌륭한 관리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목초가 한낱 풀포기가 아닌 벼, 보리와 다름이 없는 작물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동안('81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소는 모두 160여만 마리이다. 소가 먹어치운 수입 농후사료의 양은 모두 88만 5천 톤으로 1억 2천만 달러어치이다. 얼른 생각해봐도 목초를 키워 수입사료에 대치한다면 그만큼 수입사료에 드는 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목초를 먹여 기르는 것과 농후사료를 먹여 기르는 것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경제적인 사육 방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형화 박사와 함께 소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농가를방문해서 취재해 보았다.

#### 〈방문 1〉

논 2,400평과 밭 1,500평의 농사를 짓고 부업으로 젖소 성우 5두를 기르는 농가의 예이다. 낙농의 총수입은 유대로 환산하여 연간 800만원, 송아지 생산수입 400만원, 계 1,200만이었다. 비용은 약 400만원으로서 이에는 농후사료 연간 소요량 12,000kg분 220만원과 인건비 70만원, 진료비 기타 잡비 등을 이룬다. 따라서 실질소득은 800만원이다.

그런데 이 농가에서 조사료를 여름철에 급여함으로써 1일 두당 약 2kg, 계 10kg 정도의 사료를 절감하고 있었다. 여름철에 산야초를 베어 먹임으로써 연간 627,800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풀베는 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약 45만원의 절감액을 얻고 있었다.

#### 〈방문 2〉

착유우 10두, 임신된 육성우(젖소) 10두, 번식용 육우 10두, 총 44두 규모의 소와 초지 10ha, 사료작물포 3ha, 내년에 초지조성할 산지 5ha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이다. 연간 총수입을 보면 우유에게 1,000만원, 젖소 송아지 생산수입 1,200만원, 육우 송아지 생산수입 1,200만원으로 계 3,400만원이다. 연간 총지출은 농후사료비 640만원, 조사료 생산비 500만원, 기타 잡비 660만으로 계 1,800만원이다. 따라서 이 목장의 연간 소득은 1,600만원이다.

조사료를 농후사료에 대치하여 급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내역을 보면 6개월동안 방목을 실시하여 육성우에서 332만원, 착유우에서 63만여원, 계 400여만원 정도가 절약되고 있었다.

#### 〈방문 3 : 두산목장〉

비육우만 500여두 사육하는 목장이다. 이 목장의 경영상황을 보면 송아지에서 300kg까지는 초지를 이용하여 사육하고 300kg이상의 소는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한다. 수지상황은 1일 두당 증체량이 0.55kg이므로 연간 증체수익이 5억 9천만원. 지출은 간접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2억 9천만원인데 이에는 농후사료 구입비 1억 5천만원, 조사료 생산비 4천만원, 기타 관리비 등 1억원이다.

이 목장에서 초지가 없이 농후사료만으로 사육했을 때를 가정하면 1일 두당 평균 농후사료가 2kg 더 추가되어 연간 2억 2천만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이 목장에서는 초지를 이용함으로써 결국 3천만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

#### 〈방문 4 : 한국야쿠르트목장〉

'80년도부터 초지를 조성하여 현재(1982년) 200정보의 초지가 완성되었고 내년(1983년)에 125정보를 더하여 325정보의 초지가 완성된다. 작년(1981년)에 번식우 100두를 입식시켰는데 앞으로 150두의 번식사업을 위주로 한다. 수지상황을 보면 연간 80두 분만으로 두당 75만원으로 보았을 때 5천 6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총비용은 직접비만으로 1,450만원인데 이에는 초지 관리비용 즉 조사료 생산비 960만원, 겨울철의 농후사료비를 1일 두당 1.5kg씩으로 하여 220만원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 목장의 사육방식을 도시근교에서 볼 수 있는 벗짚 위주의 사육을 한다면 하루에 두당 5kg의 벗짚을 급여해야 되고 4~5kg의 농후사료를 먹어야만 번식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리되면 약 2천 8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목장에서는 방목을 하는 동안 전혀 농후사료를 먹이지 않는데 목초를 대치함으로써 약 1,5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1982년) 우리나라에는 약 165만여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의 사육규모와 사료소비량을 추정해 보면(김 형화 박사) 쇠고기 자급률을 80%로 가정했을 때 약 397만 7천 두의 소가 사육되어야만 되고 이에 필요한 사료는 현재(1982년) 수준으로 농후사료를 급여한다면 582만 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소의 일반적인 사료급여 수준으로서 연간 조사료를 4.5톤, 농후사료를 젖소에는 2.1톤, 육우에 1.1톤을 급여한다고 가정하면 농후사료가 304톤 소요됨으로써 278만 톤의 농후사료가 절약되는데 약 5억 4천만 불(拂)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에 필요한 조사료 소요량은 1,190톤이며 이를 전량 초지에서 생산한다면 119만 정보의 초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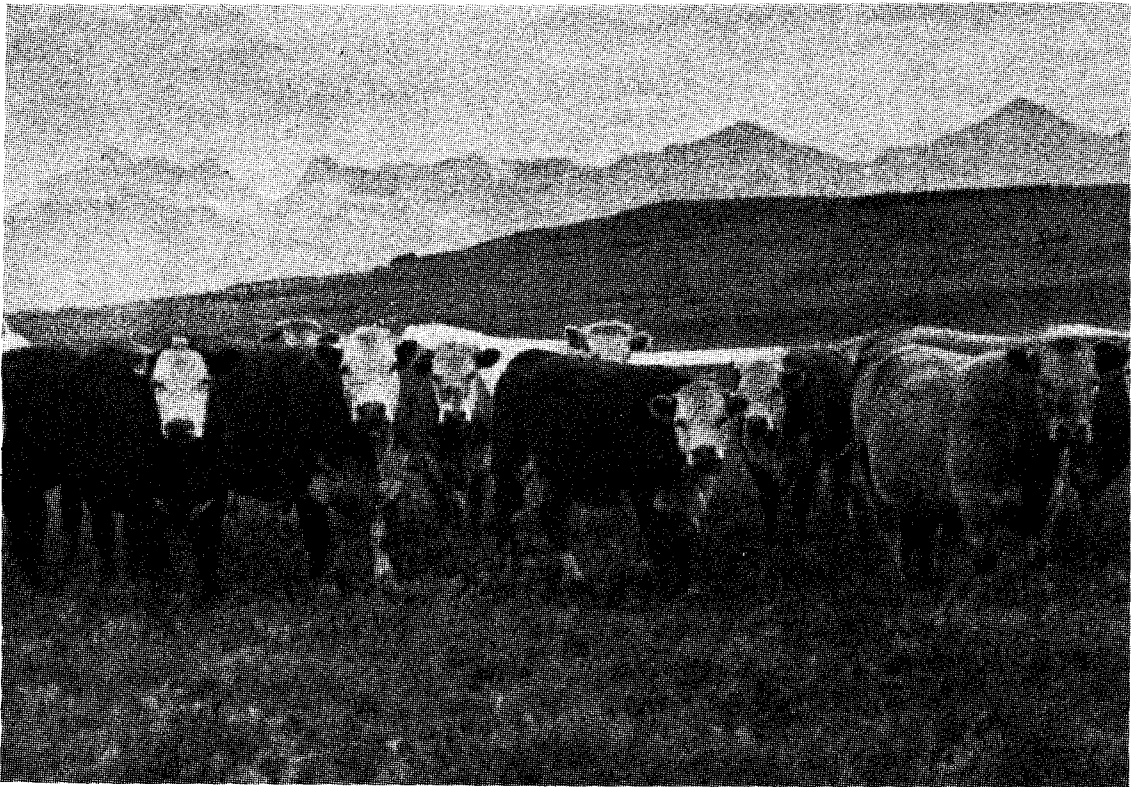
필요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소의 절대두수가 줄어들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쇠고기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74년에 1억 2천 8백만 마리였던 미국이 80년에는 1억 1천 1백만 마리로, 3천백만 마리였던 호주는 2천 6백만 마리로, 9백만 마리였던 뉴질랜드가 8백만 마리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기간에 185만 마리에서 166만 마리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값의 국제시세가 오름세에 있고 앞으로 값이 뿔 전망이다. 초지의 확장 못지 않게 소의 증식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산지초지 방목장, 광활한 면적을 초지로 조성하여 소들의 기호에 맞게 가꾸고 있다.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으로 인하여 번식장애 등 피해가 많다. 따라서 초지조성 기반을 확충하여 소를 증식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비교적 경제성이 낮은 한우 위주의 사육에서 벗어나 경제성이 높은 젖소를 중심으로 사육을 장려해 감으로써 유육(乳肉)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젖소의

증식두수를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우를 개량해야 한다. 개량을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인공수정으로 인한 개량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정란 이식을 시켜 좋은 소의 탄생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수정란 이식이란 수정된 난자를 다른 소의 배속에 이식시켜 그 배속에서 수정된 알이 커서 새끼로 분

만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결과 나쁜 소의 배속에서도 좋은 소의 혈통을 가진 소가 탄생될 수 있고 또한 좋은 소의 배속에서 1년에 한번 탄생시키던 것을 나쁜 소에서도 얼마든지 출산이 가능케 하여 경제성과 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낙농에서 고능력우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육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수량을 빨리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란 이식이 성공하면 비육우에서도 쌍태분만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 숫자가 늘도록 할 수 있다. 우선 한우에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종모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협 서산목장을 통해서 후대점정사업을 거친 우수한 종모우를 생산하고 등록사업도 강화하여 출하체중을 단기간에 400kg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가축 증식과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와 우유의 수요가 늘어난 것과 상승세('82당시)에 있는 소값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초지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그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초지조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지조성은 어떻게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산지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 '79년 2월에 허가받아 4년 후인 금년('82년) 9월부터 작업착수를 한 곳에 찾아가 볼 수 있었는데 국유림이라 산림청에서의 허가가 늦어서 지연된 곳이었다.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에 있는 신정목장의 경우 초지 59ha, 작물포 17ha, 계 76ha로서 착유우 120두를 포함하여 354두 규모의 젖소를 집약초지로 조성하여 연중 청초나 사일리지로서 급여하고 있었고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500두 정도는 사육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ha당 6두에서 앞으로는 10두 정도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일대 도유림 1500ha가 들어서 있는 소뿔산에 대단위 집단초지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소나무

와 낙엽송, 참나무등 20년생 숲을 불질러서 일곱 농가가 공동으로 초지를 조성하는 거기에는 언젠가는 축산국가로서 커가는 길만이 산지를 이용하여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 람들만의 작업장이었다. 불을 질러 걸뽀림 초지 방식을 함으로써 염가로 조성한다는 그들은 초지조성 허가와 함께 가축입식 등의 부수적 허가도 동시에 이뤄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리 되면 일부는 소를 먹이면서 자연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제경법이 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조성방법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초지 전문가를 찾아 전반적인 대책 등을 알아봤다.

이 인형(농수산부 낙농초지과장) :

금년도('82)의 예를 들자면 1ha 초지조성에 약 106만 8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부 시행과정에서 20ha 미만일 경우는 50% 보조, 50% 용자로 하고, 20ha 이상일 경우 100% 용자를 해주었고 공동초지의 경우는 부락 뒷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50만원씩 100% 보조해 주었으며 단지초지의 경우는 50% 보조, 50% 용자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일반초지의 지원은 금년도('82)와 같이 하되 단지초지는 300ha 이상(개간이 아닌 산중에서) 규모로 하여 그 초지에서 완전히 축산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조전 용자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송 찬원(농수산부 축산국장) :

초지개발 이용도 역시 일반 작물과 같이 정성이 들어야 하고 어떠한 풀종류를 심느냐는 것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농가에 보급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이번에 축협중앙회에 초지조성을 전담 지도하는 기구에 기술들을 규합해서 연중 순회하며 지도하고 사후관리등의 지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동암(서울대 농대 교수)

초지조성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하겠는데 과거에는 집약초지, 즉 경운초지를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산지의 토양유실을 고려하여 걸뽀림법이나 제경법이 주로 이용되어야 한다.

육 중룡(서울대 농대 교수) :

우리나라 초지작성은 20여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기술축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산지개발에는 토양유실등의 문제가 있어 기술을 요하는데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앞으로는 '산지초지연구소'라고 할까,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초지조성 사업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10년, 20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그러한 예이니 끈기를 갖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반드시 이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축산입국의 기반이 될 초지로 가는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현장을 찾아 알아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지는 일반적으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토양을 개량해야만 초지를 조성할 수 있고 일단 초지를 조성하고 나면 조성하기 이전보다 토양이 훨씬 비옥해지고 토양유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번째로는 농후사로 위주의 소 사육방법을 목초 위주의 조사료로 바꾼다면 10년후('92)엔 5억 4천만 달러의 사료수입비를 절감할 수 있

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 산지와 같은 경사지가 많은 곳에서는 자연훼손을 막고 경비를 줄이면서 땅을 갈아엎지 않는 제경법이나 걸뿌림법과 같은 불경운조성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초지조성 실패의 대부분이 기술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볼 때 초지조성 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분야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축적, 보급이 앞서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지조성도 1~2년만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초지로 가는 지름길은 있을 수가 없으며 오랜 세월동안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길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재 : KBS 보도본부 홍 성규 기자

구성 : 백 명신

편집 : 이 철형, 박 재우

제작 : KBS 보도본부

설사예방 치료제

# 베루빈산



**강력하게 듣습니다!**

건위강장소화 효소제

# 스마겐산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31-29

본사·공장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구갈리 227

☎ 582-9181~5

☎ 수원 ⑧3423/4